

K-지역문화 콘텐츠

: 왕조의 기억을 깨우다, 준경묘·영경묘와 봉심 재현 행사

K-Local Cultural Content: Awakening the Memories of a Dynasty – Jun-gyeongmyo, Yeong-gyeongmyo, and the Bongsim Reenactment Ceremony

윤은서*

오늘날 K-Culture는 더 이상 K-pop이나 드라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각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야기들이 전시와 체험, 축제와 공연을 통해 다시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K-Culture의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원도 삼척의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는 흥미로운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준경묘와 영경묘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 장군과 그의 부인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현재 남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조선 왕실 선대 묘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문화유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무덤에는 조선 왕조의 건국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태조와 고종이 각각 왕조와 황실의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목했던 역사도 담겨 있다. 더욱이 대한제국 시기 강원도 관찰사가 묘역을 살피던 봉심(奉審)의 전통은 오늘날 봉심 재현 행사라는 형태로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고전소설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bdsdmstj2003@naver.com

이어지고 있다. 과거 왕실의 의례였던 봉심은 이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준경묘와 영경묘 역시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될 때 비로소 문화유산은 오늘의 의미를 갖게 된다. 준경묘와 영경묘,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현 행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준경묘와 영경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 왕실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2026년 삼척에서 열린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현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이 오늘날 K-지역문화 콘텐츠로서 어떤 가능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덤에 얹힌 이야기

준경묘와 영경묘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李陽茂) 장군과 그의 부인의 무덤이다. 태조의 1대조부터 4대조까지의 능이 모두 함경도 지역에 위치한 반면, 준경묘와 영경묘는 강원도 삼척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조선 왕실 선대 묘역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곳의 가치는 단순히 ‘왕실의 무덤’이라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준경묘와 영경묘에는 조선 왕조의 기원을 둘러싼 이야기와 왕실의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그리고 대한제국기 황실의 기억이 함께 남아 있다. 오늘날 이곳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도 단순한 문화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양무 장군의 아들인 목조(穆祖)에게서 찾을 수 있다. 목조는 원래 전라도 전주에서 생활하였으나 지방 수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삼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양무 장군 역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목조는 선친을 현재의 준경묘 자리에 안장하였다. 당시에는 한 가문의 장례에 지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훗날 그의 후손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 무덤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왕조가 세워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실의 뿌리를 선조들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려 하였고, 삼척의 이 무덤 역시 조선 왕실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진 1〉 삼척 준경묘

출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사진 2〉 삼척 영경묘

출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이 과정에서 함께 전해진 이야기가 바로 백우금관전설(百牛金棺傳説)이다. 전설에 따르면 목조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명당을 찾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 이양무 장군을 안장하였다. 이후 그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오늘날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보다 이야기의 의미였다. 새롭게 등장한 왕조는 자신의 탄생을 설명할 서사가 필요했고, 백우금관전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태조 이성계와 연결하여 이해하였고, 준경묘를 단순한 무덤이 아닌 조선 왕조 탄생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역시 이러한 기억을 중요하게 여겼다. 새 왕조를 세운 창업 군주에게 선조의 행적과 묘역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실제로 태조는 1393년 삼척군을 삼척부로 승격시키고 홍서대를 하사하는 등 이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태조의 관심이 곧바로 공식적인 인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삼척의 무덤이 실제로 이양무 장군 부부의 묘라는 전승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기록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실은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선대 묘역으로 확정하기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준경묘와 영경묘는 왕실의 기억 속에서는 중요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애매한 위치에 머물게 되었다.

수백 년 동안 전승과 기억 속에 존재하던 이 무덤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서였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황실 체계

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왕실의 계보와 선조에 대한 추승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왕조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 이 무덤에 주목하였다면, 고종은 대한제국 황실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 무덤을 불러낸 셈이다. 광무 3년(1899), 고종은 이양무 장군의 묘에 ‘준경묘’, 부인의 묘에 ‘영경묘’라는 묘호를 내리고 영건청을 설치하여 묘역을 정비하였다. 오늘날 묘역에 남아 있는 「대한준경묘」와 「대한영경묘」 비석 역시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고종 황제의 친필 전서체가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단순히 무덤의 이름을 기록한 표지석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이 자신의 기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준경묘와 영경묘는 지역 사회와 봉향회의 노력 속에서 꾸준히 보존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국가사적 제52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건국 설화와 왕조의 기억,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흔적이 한 공간에 남아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였다. 결국 준경묘와 영경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이곳에는 왕조의 시작을 설명하려는 이야기와 정통성을 둘러싼 고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된 기억이 함께 남아 있다. 오늘날 봉심 재현 행사와 같은 문화활동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풍부한 역사적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2026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현 행사

이처럼 준경묘와 영경묘에는 조선 건국 설화에서부터 대한제국기의 추승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풍부한 역사와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진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 문화유산이 현재의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년 삼척에서 열린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현 행사」는 준경묘와 영경묘에 담긴 이야기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다시 풀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봉심(奉審)은 본래 지방관이 국왕을 대신하여 능묘를 살피고 제향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의례를 말한다.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는 강원도 관찰사가 준경묘와 영경묘를 직접 찾아 묘역을 둘러보고 관리하였다. 당시 봉심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왕실 선조의 묘역을 살핀다는 것은 곧 왕조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이었으며, 황실의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태조와 고종이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무덤에 주목했던 이유 역시 왕실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봉심은 그러

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의례였던 셈이다.

오늘날 봉심은 더 이상 제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왕도, 관찰사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삼척에서는 매년 봉심 재현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의례를 단순히 복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준경묘와 영경묘가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왕실이 기억하던 공간을 이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사의 중심은 대한제국기 봉심 행차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두기를 앞세운 행렬은 군관과 집사관, 강원도 관찰사, 삼척군수 등의 인물로 구성되어 금천교에서 홍살문까지 이동하며 과거의 봉심 모습을 재현한다. 이어 제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제각과 비각 주변을 살피는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행렬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왜 관찰사가 이곳을 찾았는가’, ‘왜 이 무덤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과거의 의례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진 3〉 2026년 삼척 강원도 봉심 재현 행사

출처: 강원도민일보

특히 2026년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강원도 관찰사의 길」 역사 트레킹 프로그램의 신설이었다. 참가자들은 준경묘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3~5km 구간을 직접 걸으며 국가사적 제524호인 준경묘·영경묘 일대를 둘러보게 된다. 언뜻 보면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걷기 행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봉심이라는 의례의 성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현대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봉심은 관찰사가 묘역에 도착한 이후의 의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왕을 대신해 현장을 찾아가고, 주변을 둘러보며, 공간 전체를 살피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역사 트레킹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과거 관찰사가 걸었던 길을 오늘날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걸어보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장소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몸으로 경험하게 만든 것이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전해지는 공간과 자연환경을 함께 마주하게 되고, 준경묘와 영경묘가 왜 오랫동안 왕실의 관심 속에 존재했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대한준경묘」와 「대한영경묘」 비석의 글씨를 직접 옮겨보는 황제 친필 비명 탁본 체험은 대한제국기 고종이 이 무덤에 부여한 의미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왕실 가족 의복 체험과 가족 역사아트 클래스, 시화 전시 등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문화유산을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역사와 현재 사이의 거리를 좁힌 것이다.

결국 2026년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현 행사는 준경묘와 영경묘에 담긴 역사적 서사를 현재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조와 고종이 주목했던 공간은 더 이상 왕실만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관찰사 행렬을 바라보고, 숲길을 걸으며, 비석을 탁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준경묘와 영경묘를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3. K-지역문화 콘텐츠, 왕조의 기억을 깨우다

오늘날 K-Culture는 더 이상 K-pop이나 드라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활용하여 관광과 문화, 교육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문화 콘텐츠가 K-Culture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준경묘와 영경묘,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현 행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척의 준경묘와 영경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위치해있었다.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직접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아무리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기록 속의 유산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유산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보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지닌 이야기를 현재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준경묘와 영경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곳에는 조선 왕조의 건국 설화와 태조의 관심, 그리고 대한제국기 고종의 추봉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안내판 몇 줄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직접 경험할 때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봉심 재현 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관찰사 행렬은 대한제국기의 봉심 의례를 눈앞에 되살려 주고, 역사 트레킹은 사람들이 직접 역사 공간을 걸으며 장소의 의미를 체험하도록 만든다. 또한 탁본 체험과 왕실 의복 체험은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유산이 살아남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활용될 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실제로 경복궁 야간관람이나 궁중문화축전, 한복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 준경묘와 영경묘 역시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2026년 봉심 재현 행사는 단순한 전통행사에 머물지 않고 역사 트레킹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지역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과거 왕실의 의례였던 봉심이 오늘날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역사유산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준경묘와 영경묘가 단순히 ‘조선 왕실의 무덤’으로 소개되는 것에 그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러나 태조가 자신의 선조를 찾고자 했던 이야기, 대한제국기 고종이 왜 이 무덤을 다시 주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봉심이 오늘날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전달된다면 문화유산은 훨씬

풍부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설 서비스나 다국어 콘텐츠 등이 함께 마련된다면 준경묘와 영경묘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화유산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유산이 된다. 준경묘와 영경묘는 태조와 고종의 관심 속에서 왕조의 기억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는 봉심 재현 행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현재의 문화로 되살려 내는 과정이야말로 K-지역문화 콘텐츠가 지닌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배재홍·옥한석·이재근·전신재·최장순, 『삼척 준경묘 영경묘 역사문화가치 조명과 활용』, 강원도민일보 삼척시, 2011.
- 박봉우·이재근·이창환·정종수, 『삼척 준경묘·영경묘 보존 관리와 명소화 전략: 국가사적 승격 기념』, 강원도민일보 삼척시, 2012.
- 구혜인, 「대한제국기 황실 조상묘 준경묘(濬慶墓)·영경묘(永慶墓) 제기(祭器)의 구성과 성격」,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5.
- 최장순,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한국농촌건축학회, 2013.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 구정민, 「삼척 준경묘·영경묘 ‘관찰사 봉심’ 재연…조선 왕조 태동의 숨결을 걷다」, 강원도민일보, 2026.04.20. (<https://www.kado.net>)
- 신석준, 「2026 준경묘·영경묘 강원도 관찰사 봉심 재연 및 청명제 개최. 유교신문, 2026.04.17. (<https://www.cfnews.kr>)」
- 이용선, 「황제의 글씨를 통해 만나는 효심」, 강원도민일보, 2026.04.17. ((<https://www.kado.net>))

